

한국 역사인물 100인에 원효·서산등 스님 8명

새천년준비위 선정...해맞이·타종행사 실시

새천년준비위원회(위원장 이여령)가 1일 국사편찬위원회에 의뢰해 선정, 발표한 한국의 역사 인물 100인 명단에 스님 8명이 포함됐다. 선정된 스님은 △남국시대 이진=원효·의상 스님 △고려시대=의천·지눌·일연 스님 △조선시대=서산·사명 스님 △대한민국=한용운 스님이다.

한편 새천년 맞이 불교관련 행사는 1월1일 △포항 해맞이 축전 중 만파식적 공연 및 6대종교 지도자 메시지 발표 △강릉 정동진 매항비 제막식 및 동해유왕 항복배 띄우기 △새즈문해 종소리 전파 등이 있다. 타종은 12월15일부터 1월5일까지 매일 아침 8시 사찰, 교회 등에서 각 종교별로 자율 시행되며, 새천년준비위 홈페이지(www.kmc.go.kr)에 종소리를 선보이고 있다. 김재경 기자(jkim@buddhopia.com)



네팔 카투만두에서 JGO지부 설립 및 헌관식후 기념촬영한 성초 진각종 총리원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진당장사.

진각복지재단 네팔등 지부 설립

(사)진각복지재단 성초 이사장(진각종 총리원장)과 진당 이사장은 11월 25일과 28일 네팔과 스리랑카를 차례로 방문, 카투만두와 콜롬보에서 각각 국제지부인 JGO(Jin-Gak Order, The Joy of Genuine Oneness) 지부 설립식과 헌관식을 봉행했다. 25일 네팔을 방문한 성초이사장은 네팔전통 불교회와 함께 지부 설립식을 갖고 지부장에 내레쉬만파사를 위촉했으며 28일 스리랑카에서는 아팔라마테 와나타나스님을 지부장으로 위촉했다. 진각종은 이들 지부를 중심으로 인적자원 개발 및 경제 지원, 빈곤해소,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는 등 국제구호사업에 적극 나서고 종교교류 및 민간교류를 통해 포교활동과 중단홍보를 활발하게 펼칠 계획이다. (본지 246호 23면 기사 참조) 이영숙 기자



11월 열린 지랑스런 불자상 시상식. 사진 오른쪽부터 유정길, 이하우씨.

자랑스런 불자상 이하우·유정길씨

학장을 각 10년씩 역임하는 동안 1000여명의 포교사를 양성한 공로로, 유정길 국장은 환경단체 위크삼을 지속 개최하는 등 불교환경사상 총포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

1일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불국토의 밤 행사에서는 자랑스런 불자상 시상과 함께 제7회 보리방승문화상(본지 248호 19면 참조) 시상식이 함께 열렸다. 천미희 기자

이하우 학장은 해동중학교 교법사 및 부산불교교육대

교차로

난치병 기증에 600만원 전달



현성 승가원 이사장은 3일 강북구청장실에서 강북구 관내 난치병 가정 3세대에게 각각 200만원씩을 전달했다. 이 돈은 원간 '소적새마을' 신문이 후원자들로부터 모은 성금.

관음사 성역화추진위 창립



종원 제주 관음사 주지는 3일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한라산 관음사 성역화사업 추진위원회' 창립대회를 봉행했다.

'21세기 불자의 자세' 법문



진철스님(봉도사 주석)은 4일 우리선우토요 가족법회에서 '21세기를 맞는 불자들의 마음자세'를 주제로 법문을 했다.

선무도 홈페이지 개설



적은 세계선무도진흥회 회장 스님(경주 팔공사 주지)은 최근 불교 전통무술인 선무도(禪武道)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주소=www.sunmudo.com

실직자 지원 일일차집



영달 덕유사회복지관장 스님은 10일 원천시 임마루 상1동 403-1 서진프라자 지하 1층에서 실직자 가정 지원을 위한 일일차집을 연다. (032)325-2161

무의탁 노인들기 바자



지흥 속속종합사회복지관장스님은 11월 25일 복지관 2층 강당에서 무의탁 노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사랑의 알뜰 바자'를 개최

4천기 규모 남골당 기공



학운 대한불교불이종 총본산 용국사 주지는 10일 4천2백구의 유골을 안치하는 법당식 남골당 기공식을 봉행한다.

법장사 가족 송년법회



법장 서울 증계동 무진법장사 주지는 19일 오전 11시 사찰 전 신도를 대상으로 가족 송년법회를 개최한다.

동대 불교대학원 15기 정초



능화 동국대 불교대학원 15기 회장 스님은 6일 교내 상록원 3층 교수식당 별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불교방송 단합전진대회



성낙승 불교방송 사장은 4~5일 부록온천체육관에서 본사를 비롯한 부산 광주 대구 청주 지방사 전체 임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단합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제4회 고창문화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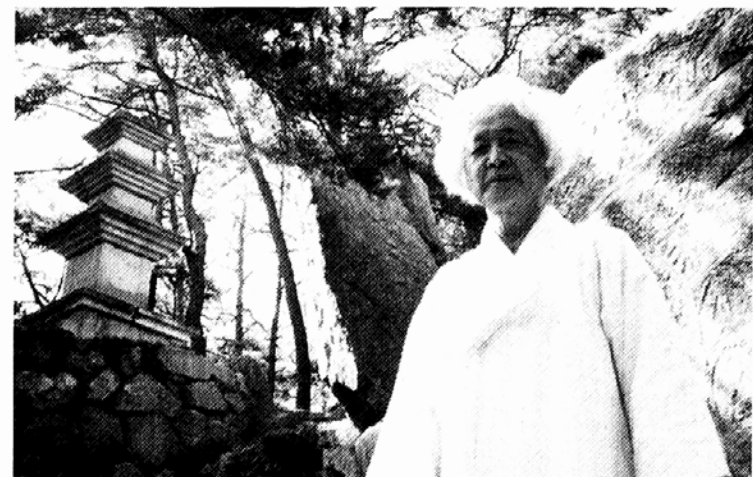


김양일 울산일보 회장은 4일 전북 고창을 들뜬 가운데 한국문화재단 고창지부가 주관한 제4회 고창문화상을 수상(수상작 <국민화합은 남북분단 극복의 중심축>) 했다.

'우파니사드와 선' 특강



김호성 동국대학교수는 16일 오후 6시30분 서울 강남 무분선원에서 '우파니사드와 선'을 주제로 특강한다.



경주 남산의 절터를 115개로 바로 잡는등 누구보다도 보존에 앞장섰던 '마지막 신라인' 윤경렬을.

신라문화 보존에 평생헌신

향토사학자 윤경렬翁 별세

하얀 두루마기에 신선처럼 눈부신 백발로 경주 곳곳을 안방처럼 누비며 신라문화 탐구에 헌신해온 향토사학자 고령(古靑) 윤경렬(尹京烈) 선생이 11월30일 오후10시 15분 경주시 인왕동 자택에서 향년 8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916년 함북 주출에서 태어난 윤옹은 광주학생운동을 계기로 '민족'에 눈을 떠 우리 고유의 미(美)를 찾는 일에 몰두해왔다. 1935년 풍속 토우를 배우러 일본에 건너간 윤옹은 가식적인 일본 토우에 한계를 느껴 당시 개성박물관장이던 고유섭선생을 찾았다.

"잠깐 아름다움은 원래 있던 곳에서 짝이 터서 꽃피고 열매맺는 법"이라는 선생의 가르침에 자극을 받은 윤옹은 49년 경주에 정착, 1천년의 세월을 넘나들며 '신라스러움'을 탐구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다. 윤옹은 평소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아름다움"이라며 "우리 부처님은 마음씨 좋은 시골아낙네나 인삼맛은 이웃 아저씨의 얼굴 그대로"라고 말해왔다. 또한 "석굴암에 삼천대천세계가 표현되어 있듯 작은 것에 큰 것을 담을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우리문화의 자랑이며 장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주 남산의 절터를 직접 답사해115개로 바로잡았고 고속철도 경주노선의 도심통과를 반대하는데도 앞장서 경주의 훼손을 막았다.

또한 20여년전 아들이 차려주는 환갑잔치를 마다하고 그 경비를 남산 성역조사에 사용할 정도로 남산보호에 남다른 공을 들여온 '남산 수호신'이었다.

윤옹은 경주어린이박물관을 개설하고 신라문화인회를 만들었으며 <불교문화잡지> <신라이야기> <신라의 진실> <신라의 아름다움> <경주남산> <겨레의 땅 부처님의 땅> 등 왕성한 저술활동으로 신라문화를 재조명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1949년 경주에 한국중속인형연구소인 고창사를 설립하기도 한 윤옹은 한국문화예술상(문화부문), 금북문화예술상(특별상), 조선미술전람회 입선, 전국관광인예품경진대회특선 등의 수상 경력도 갖고 있다.

한편 윤경렬翁의 영결식은 3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신라문화동인회장으로 엄수했으며 시신은 화장돼 흥륜사에 봉안됐다. 영결식에는 성타 불국사 주지, 김일운 한나라당 의원, 강우방 국립경주박물관장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김태중 신라문화동인회장은 조사를 통해 "선생은 바쁘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으면서 결코 힘든 파는 일이 없었던 신라연구의 선도자"라며 애도했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opia.com)

청소년 성상담 사이트 떴다

이근후박사 '아 섹스' 개설 전문가 20인 성지식등 보급

이화여대부속병원 정신과 이근후 박사(본지 논설위원·사진)가 11월 24일 청소년 성문제 상담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아 섹스'를 개설했다. 보건복지부의 지원아래 98년부터 준비해 문을 연 이 홈페이지는 이박사를 비롯 이화여대 사회학과 김동일교수와 이화여대 신경정신과 박영숙 교수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박사는 "단순히 성에 대한 호기심뿐 아니라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이버 성교육 공간이라는 점에서 기존 성교육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지닌다"면서 "3백여가지의 성관련 용어와 지식들을 통해 무분별한 성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인터넷홈페이지는 성심리검사, 집중토론크너, 성칼럼, 부모교실, 성지식 등의 코너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메일과 게시판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주소는 www.asex.org 이근자 기자

재생불량 빈혈 대학생 치료비 막막

호소

어촌마을인 경남 사천에 사는 이경훈군(25)은 지난 97년 '재생불량성빈혈증' 판정을 받고 2년6개월여동안 투병생활을 해왔다. 병세가 악화되면서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고 골수기증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다 지난 8월 마침내 골수기증자를 찾게 됐다. 경훈군 아버지 이용기씨는 자식을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작은 논밭과 재산을 몽땅 처분했고 어렵사리 서울대학병원에서 골수이식수술을 받게 됐다.

그러나 수술후 쌓여가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더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불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 도움주실 분은 새생명평명회 김기원교수(진주산업대학교)에게 연락하면 된다. (0591)758-6611, 017-580-2388. 계좌번호 : 농협(803-01-344384). 우체국(611376-0061216) 한명우 기자(mwhan@buddhopia.com)

새천년맞이 특별수련 프로그램

TIBET 불교 수련체험 안내

내 마음의 태양을 맞이합니다. 마음의 본성은 푸른 하늘과 같고 자성의 본질은 밝은 태양과 같다고 했습니다. 욕심과 집착의 번뇌구름을 떨쳐버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태양과 자성의 푸른 하늘을 만나보십시오. 매주 주말을 이용한 "1박2일의 출가생활"을 경험하는 수련도량 대원사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TIBET의 지혜와 명상"을 주제로 하여 아래와 같이 겨울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겨울 수련 일정표

차수	대상	기간(3박4일)	모집인원	회비
제1차	일반인 대학생	1999년 12월 30일 ~ 2000년 1월 2일	50명	7만원 (교재비포함)
제2차	일반인 대학생	2000년 1월 6일 ~ 2000년 1월 9일	50명	5만원
제3차	가족단위	2000년 1월 13일 ~ 2000년 1월 16일	50명	5만원
제4차	불자교사 및 불교지도자	2000년 1월 20일 ~ 2000년 1월 23일	50명	5만원
제5차	일반인 대학생	2000년 1월 27일 ~ 2000년 1월 30일	50명	7만원 (교재비포함)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까지 입산등록하고 일요일 오후 2시에 회향 하산합니다. ● 제5차 수련은 24시간 동안 단식, 단수, 목연, 불면, 불화의 TIBET 특별수련 <용뇌·NUNG-NEY>이 함께 진행됩니다.

● 수련지도<I> 쇼펠스님

조펠스님은 티베트불교의 양대학과인 규메 밀교대학을 졸업하고 한국불교와 영적인 교류를 위해 현재 대원사에서 정진하고 있다. 송광사 강원에 주1회 특강을 나가고 있으며 티베트불교 수행지침서인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를 우리말로 번역하였다.

강의 ① TIBET 불교의 기초수행법
강의 ② TIBET의 정신문화
강의 ③ 바르도 세계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 수련지도<II> 현장스님

대원사의 주지이며 염불선이야기 "나를 보게 하소서"와 중음신제도법 "죽음을 준비하십시오"의 저자이다. 학습 ① 좌선 기공법, 육근침회법, 기공염불법, 학습 ② TIBET 점수행법·만트라학습 학습 ③ TIBET 불교 슬라이드(사자의 서 비디오)

● 수련지도<III> 예진법사(대원사 기도법사)

① 사찰예법
② 천봉산 등산(백제절터):용서와 축복의 산책길
③ 사경,사불지도

접수 방법

A4용지에 ①이름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직업 ⑤전화번호 ⑥종교 ⑦희망차수 ⑧참가소견을 적어서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 : 1999년 12월28일까지 ▶준비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손전등 담요1장

1.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여시아문)
 2. 티베트의 지혜 (민음사)
 3. 티베트 예술과 자연 (연지문)
 4. 나를 보게 하소서 (민족사)
 5.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우리출판사)
- *위의 책을 수련참가전에 읽고 오시면 좋습니다.

◎ 대원사 고통편 : 광주고속터미널에서 117번 시내버스타고 사평종점 하차 대원사까지 택시 혹은 군내버스이용 광주에서 1시간 부산·대구 3시간 30분 서울에서 5시간 정도 소요됨

◎ 접수처 : 전남 보성군 문덕면 대원사
전 화 (0694)852-1755/853-1755
팩 스 (0694)853-0009
온라인 조흥은행 322-06-008780(석현정)

백제고찰·수련도량 천봉산 대원사 주지 석현장 합장